

## SNUAC Asia Square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4

### 객지에서 싹튼 희망: 러시아 출신 이민자들의 이야기 Hope in a Foreign Land: Stories of Russian Immigrants

Vadim Slepchenko

2022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상황은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러시아로부터의 이민 물결이다. 주로 이민을 결정한 사람들은 사회단체 활동가, 정치인, 언론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민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박해에 대한 공포였다. 그 외에 IT기업 전문가들도 이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의 이민 이유는 전쟁 상황에서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러시아의 경제나 인도주의적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21일에 푸틴 대통령이 발령한 부분적 동원령은 제2의 이민 물결을 야기하였는데 징집 기피자들은 이 이민 물결의 주가 되었다.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침공이 시작된 첫해에 50만에서 13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를 떠났다. 이들의 대부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등 비자 면제 국가로 이주했다. 그중 15% 이상이 러시아에 귀국했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 현재 해외로 떠난 러시아 전쟁 이민자들을 위해 '렐로칸트(pe локанты)'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이후 러시아를 떠난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난민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다른 난민들과 달리 이들은 수용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급 인력이다.

러시아 난민 최대 수용국 중의 한 국가는 아르메니아이다. 현재 아르메니아에는 약 11만 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정주하고 있는데 그 중 개인 사업가로 4,000명, 법인으로 2,500명이 등록하였다.

발표자는 올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르메니아(예레반)와 조지아(트빌리시)를 방문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렐로칸트 10명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객지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슬랩첸코 바딤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떠난 이민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통해 "러시아 '렐로칸트(전쟁 난민)'의 수용국 경제 참여와 기여"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Date & Time: Apr 30, 2024.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